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30원 하락한 1,310.50원에 마감

5일 환율은 전일대비 5.30원 하락한 1,310.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80원 하락한 1,313.00원에 개장했다. 간밤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309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였다. 오전 장중 역외 위안화에 연동하여 등락하였으나, 양방향 수급을 소화하며 큰 변동성은 없었다. 오후장 들어 환율은 국내 증시 오름폭 확대 및 커스터디 매도세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폭을 키우다가 장 막판 소폭 상승하여 1,310.5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폭은 5.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96.4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3.00	1314.90	1309.10	1310.50	1311.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98.01	1002.98	994.00	1001.1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41.17	1442.29	1427.13	1428.8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8	-6.6	-14.2	-26.14
결제환율(수입)	-1.37	-5.4	-12.18	-23.3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에...1,310원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0.50원) 대비 6.40원 상승한 1,314.50원에서 최종 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 3월 ADP민간고용은 전월 대비 14.5만명 증가로 전월(+26.1만명) 및 예상(+21.0만명)을 하회하였으며, 3월 공급관리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1.2를 기록하면서 전월(55.1) 및 예상(54.3)을 하회하였다. 미국의 고용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종료 및 연내 인하 기대는 커졌지만 경기침체 우려 심화 및 위험회피심리 강화에 달러화 지수는 101.9(전일비 +

0.33%)로 상승하고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하였다. 이에 금일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 역송금 시즌과 맞물린 수요 경계감도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 및 이월 네고 물량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0.67 ~ 1320.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5.7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40원 ↑
	■ 美 다우지수 : 33482.72, +80.34p(+0.2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5.9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19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